

옛날 심똥에
 고도채비엿 혼 사름이
 시엿는다.
 놀쎬기가 천하 일등이랴수다.
 고도채빈 사농도 잘 혼연
 할루산이 노리 깡죽은
 돌려강 손으로 심곡
 혼엿수다.
 신축년 난리 때도
 고도채비가 들언
 성교팸 녹젼수다.
 신축년 난리 때
 모관 동문을
 고도채비가 치는디
 성우티서 서양신부가
 양총을 들런 팡팡 쏘와가난
 고도채빈
 일로 피혼곡 절로 피혼곡
 혼명
 화싱총으로만 서양신불 쏘완
 서양신부 모즐 시변이나
 뱃젼수다.
 화싱총으로만 쏘완
 모즐 뱃겨가난
 성교패들이 혼비백산 혼연
 돌아나부난
 그젠 동문이 헐리고
 고도채비가 입성을 혼엿수다.
 그 땐 나라가 약혼난
 나라는 성교펜을 들언
 난을 일으킨 건
 매딱 우리 백성들 죄엔 혼연
 삼으스 혼고 삼읍 선봉을
 문 심언 나라일 가난
 어전에 국문을 혼는다.

전하가 고도채비?라
 “활을 잘 쏘던 허난
 얼마나 쏘와지느닌?”
 들으난,
 고도채빈
 “잘은 못쏘네다만
 물에 비춘 생이 정돈
 굴메만 보멍 쏘와지쿠덴”
 허난,
 “게멘 흥번 흥여 보렌”
 흥연,
 활을 내여주난,
 나인 시견
 “큰 장태에 물질어당 놓렌”
 흥연,
 “그 우티로 생이 놀건
 쏘아보렌”
 흥였수다.
 그영흥연 훗술 시난
 그 우티로 밥주리 흥머리가
 놀았수다.
 고도채빈 그 굴멜 보멍
 밥주릴 쏘완 털어치우난
 성상이 크게 감탄을 하고,
 양총 흥즈록을 하사흥였수다.
 고도채빈 그 총을 하사받안
 느르왔는디,
 그르후제 모실에서도
 그 총을 빌지 그리와도
 어스품이라부난 누게도
 곱딱 흥질 못흥였수다.

<제주시 일도이동 신남 59세 정씨>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692.